

함께 가자! 복현골에 동트는 영동 세상으로



때● 98년 3월 17, 18, 19일

장소●복현골 곳곳

누구랑●민족복현 새내기, 재학생

=글순서=

8기 자주여성  
포럼  
새내기  
포럼

새내기 포럼  
8기 자주여성  
포럼  
새내기 포럼

- 배워봅시다 - 대동학교 교가
  - 여는시
  - 교장선생님 인사말
  - 총학생회장님 인사말
- 대동학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새내기 선서
  - 기획글
- 복현골의 성문화는 몇평?
- 첫날 강연 내용은 무얼까?
  - 세상속으로

여성정리해고 0순위, 우리의 일자리가 흔들린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올바른 성적 자기정체성 가지기  
 양공주가 아니에요 기지촌 여성들의 삶 알아보기  
 예비노동자, 예비부모로서의 탁아문제 바로보기  
 기네스북에 오르는 300차 수요시위 - 위안부 문제 알기  
 여학생회와 나? 학생회와 나?

새내기 개학성  
포럼  
8기 자주여성  
포럼

- 이렇게 살았어요 -재미있는 일기쓰기
  - 만나서 반가워요

## 8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교가

### ♪ 땀다 ♪

처음 만남에 뛰는 가슴 그런 설레임으로  
너와 함께 대동학교 왔지

맘과 눈물 땀방아 뒹 내 얼굴을 분개아  
아니 희망 가득한 복면을 분개아  
너와 내가 맺은 희망의 약속 평등의 약속  
결코 깨닫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정지마 정지마 상의 배의가며  
선한과 음기독 자 희망과 모순이  
타와 내게가 조의길 애국의 조이아  
뒤의 뒤이기자 나의 단 필을 버리는  
불행과 평등세상 만들어 나가자

☺ 노래를 모르면 외롭지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워 힘차게 불러봅시다.☺

## 바 보 과 대 표

우리학교 1학년에 바보과대표가 한 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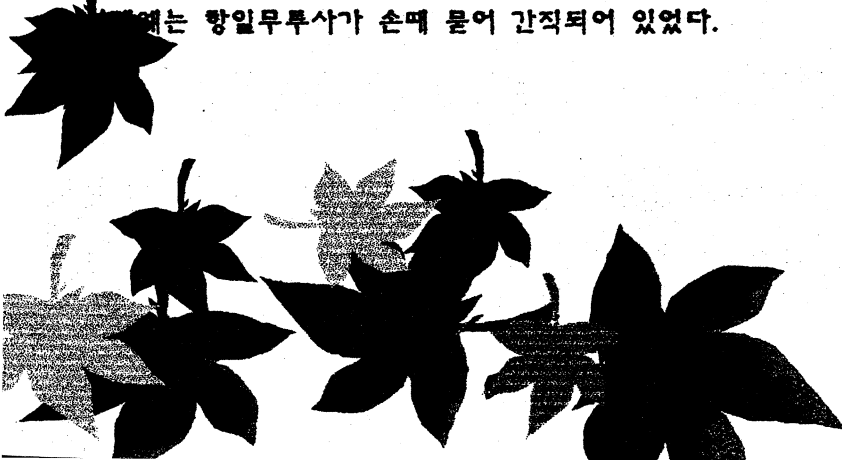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밍맹몽, 007쌍 무얼 하더라도 진짠지 가짜지  
야튼 맨날 걸려 얻어맞으며 해해 웃고  
벌주 발칵발칵 마시며 배짱 두들겨  
통작걸판지게 룠아대는 천하에 바보가 있다

항상 그 바보 곁에 사람들이 드글거리고  
그 수첩에는 120명 동기 이름 모두 적혀 있다  
누구누구와 언제 만났고  
누구의 고민은 무엇이고  
누구와는 아직 얘기 못해 보았으니  
멋있는 짓구 하나 없지만 그런것들이 잔뜩 쓰여 있다

수업 안 들어오는 애들 리포트 알려주고  
시험때는 소스(자료) 깨비 벌레 물듯 물어와 노늑주고

역사 연구반이니 사회과학 연구반이니  
소수의 의식을 위한 것보다  
바둑반이니 농구반이니  
그런 모임을 만들어 120명 모두를  
함께하는 고민으로 자기 과 소모임에 참여시켰다

일기장에는 자신의 참된 삶의 문계  
누구보다 겸허하게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개인의 안락에는 추호의 타협이 없었으며  
항상 5시간 수면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제했고  
항상 5시에는 항일무루사가 손때 묻어 간직되어 있었다.



그날

자기 과 친구들에게는 아직 이르다며 본대에 있으라하고  
아스팔트 하이바에 우리선배 전투조에 딸고 있을 때  
익살스런 춤 "간다 간다 통간다"  
신명나게 두려움 누그러 주고  
전투대장의 진격의 나팔 우렁차게 울리니  
그는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정확하게 꽃병을 꽃았다.

드디어 놈들이 이빨 으르렁거리며 멍벼들 때  
한 친구전사 미끄러지고  
모두 안타까이 돌아섰을 때  
그 바보 전사는 바보처럼 의연히 달려 나갔다

다음날 한겨레 신문에는 조그맣게 바보이야기가 실렸다.  
고대에서 2명이 화염병으로 잡혀오고 100여명이나 친구들이  
성복서 향의 방문을 했다고 바보를 풀어주라고 울부짖었다고  
총학생회장이 잡혀가도 그런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교문과 식당에서는  
바보의 바보같은 친구들을 누구나 만났다.  
그들 손에는 당구 큐대가 아니라,  
불펜이 아니라 오락실 운전대가 아닌  
규탄성명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며칠지난뒤 학생의 날 가루 전투조 사전모임에서  
한 1학년 학우의 결의 발표가 나의 심장을 쫓다

"나는 바보의 다른 과 친구입니다.

투쟁하란 말은 없었지만

그 친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짱들 한번 던진 적이 없지만 바보를 잡아간 놈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비록 제가 잡혀간다 하여도..."





8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에 오신 새내기, 재학생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개강과 더불어 새내기들의 재잘거리는 웃음으로 한동안 완전한 봄날씨 같더니 또 다시 이상기온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씩 되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겨울방학 때보다 더 따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복현의 새주인이 될 새내기 여러분들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동학교 3일간의 일정..여러가지 강연들과 토론, 실천활동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성문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왜곡된 편향이 아닌 참된 인간다움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나에게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나는 남자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공간,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이라 이야기하는 학원안에서도 잘 느낄수는 없지만 여전히 여성문제가 존재함을, 그리고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나머지 절반의 문제이기도 함을 이번 대동학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새내기 특유의 재기발랄함과 열정으로 대동학교에 임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왜냐구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에게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이니까요.

3일간의 일정 은 복현이 하나됨으로 즐겁고 신나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8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교장선생님  
13대 자주 총여학생회 회장 장운영 드림



뜻뜻함과 망설임, 하지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민족  
복원 새내기 여러분!

어느덧 민족복원의 새로운 주인이 된지 보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곳곳의 잔디밭에서 동기들, 선배들과 마주앉아 진정한 대  
학생활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새내기들을 보니 개강이 피부로 와 닿습니다.

98새내기 여러분들을 너무나 보고싶어하는 저는 30대 민족경북대 총학생회장 이성  
훈입니다. 이후 잔디밭에서 강의실에서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김영삼의 실정과 악정으로 인해 몇 년째 계속되던 경기불황은 급기야 IMF 신탁통  
치를 받게되고,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은 요즘이지만 현실에 주저앉기보다는 '청년의  
양심이 조국 지킨다'라는 말처럼 옳은 걸 옳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른 걸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로, 민족복원의 주인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새내기들의 탁월한 선택!  
대동학교에 참가하신 새내기 여러분!

남성, 여성의 차이가 아닌 올바른 인간관을 대동학교 속에서 배워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들이 있기에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민족복원. 희망을 바라봅니  
다. 민족복원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이재문, 여정남 4·9통일열사선배님의 모범  
따라 언제나 시대앞에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30대 자주총학생회 또한 이만학우들 속에서 배우는 자세로 이만의 힘과 지혜를 바  
탕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30대 민족경북대 자주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성훈 드림





# 새내기 선서

저는 자주여성 민주남성 8기 대동학교에 참가  
한 새내기로서 3일동안의 일정을 열심히 참가  
하여 참다운 대학인의 모습과 올바른 인간관  
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바꾸어 갈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17일

8기 대동학교 참가자 일동



## 북현군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 성폭력 학칙 제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해 북현군에서도 여러 형태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서관 성추행 사건, MT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그리고 성노출증 환자 도서관 침탈(?)사건 등 말입니다.

알려진 사건이 이 정도일뿐 실제로는 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매년 늘어가는 성폭력.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올바른 제도를 통해 처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올바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학칙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년 여학우 231명에게 성폭력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설문내용과 결과를 요약해 봅니다.

### 성인식 조사 설문지 결과

#### ◎상황 1 (교수님에 의한 언어 폭력)

1. 강의 도중 교수님께서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과에 여자만 많으면 안 좋다’, ‘여자는 자고로 순종이 미덕이다’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여학생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거나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163명(70.6%)	아니요	68명(29.4%)	무응답	0명
---	-------------	-----	------------	-----	----

#### 2.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신경쓰지 않는다. 40명(17.3%)
- ②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 학우들과 이야기 해본다. 92명(39.8%)
- ③ 짜증나지만 오히려 민감하다고 반감을 살까봐 참는다. 50명(21.6%)
- ④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7명(3.1%)
- ⑤ 대외적으로 알린다. 5명(2.2%)
- ⑥ 기타 7명(3.1%)

무응답 30명(12.9%)

◎상황 2 (남학우들에 의한 성폭력)

1. 술자리에서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여자에게 안 들어가도 되나?’, ‘넌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남아있나?’ 는 등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여자 취급을 받거나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119명(51.5%)	아니요	109명(47.2%)	무응답	3명(1.3%)
---	-------------	-----	-------------	-----	----------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① 신경쓰지 않는다.(한 두 번 있는 일도 아니므로) 53명(22.9%)
- ② 화가 났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 29명(12.6%)
- ③ 화가 났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다음에는 그런 소리를 못하게 한다. 35명(15.1%)
- ④ 잘못된 생각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다. 26명(11.3%)
- ⑤ 학우들과 이야기하여 공식적으로 잘못을 지적한다. 6명(2.6%)
- ⑥ 기타 6명(2.6%)

무응답 76명(32.9%)

◎상황 3 (학내 음담패설, 성희롱)

다음중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학생회실에 갔더니 남학우들만 여러 명이 있고 무엇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딱 그치더니 눈치를 본다. 조금 있으니까 결국은 축덕축덕대면서 얘기를 하더니 들으라는 듯이 야한 농담을 하면서 웃는다.

있다	63명(27.3%)	없다	168명(72.7%)	무응답	
----	------------	----	-------------	-----	--

2. 학회 세미나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러가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남자선배가 허리를 흔들면서 정력이나 성행위에 대한 야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그 곳에 있는 남학우들의 음담패설이 시작되어 끊으질 않는다.

있다	64명(27.7%)	없다	166명(71.9%)	무응답	1명(0.4%)
----	------------	----	-------------	-----	----------

3. 신입생 환영회나 졸업 페스티벌에서 성관계를 의미하는 야한 단막극이 성행한다.

있다	89명(38.5%)	없다	141명(61.1%)	무응답	1명(0.4%)
----	------------	----	-------------	-----	----------

4. 여학우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1순위로 외모가 산정된다. 새내기들이 입학하면 남자 선배들은 여자후배의 외모로써 판단을 내리거나 순위를 매긴다.

있다	187명(81%)	없다	43명(18.6%)	무응답	1명(0.4%)
----	-----------	----	------------	-----	----------

**5. 위와 같은 상황들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 ① 재미있으며 같이 이야기한다. 10명(4.3%)
  - ②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동조한다. 11명(4.7%)
  - ③ 자리를 피한다. 27명(11.7%)
  - ④ 불쾌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106명(45.9%)
  - ⑤ 화를 내면서 못하게 한다. 34명(14.7%)
  - ⑥ 공론화시켜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만든다. 9명(3.9%)
  - ⑦ 기타 10명(4.3%)
- 무응답 24명(10.5%)

**◎상황 4 (학교 생활 중의 성추행)**

다음중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모꼬지, 새로배움터 등의 술자리에서 남학우가 술에 취해서 혹은 취한 척 의도적으로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내 몸을 더듬는다. 혹은 불쾌할 정도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거나 안으려 한다.

있다	78명(33.8%)	없다	152명(65.8%)	무응답	1명(0.4%)
----	------------	----	-------------	-----	----------

2. 평상시에 남학우가 아무 이유도 없이 불을 만지고 엉덩이를 치고 머리를 쓰다듬는다. 혹은 가슴을 만지는 경우도 있다.

있다	39명(16.9%)	없다	191명(82.7%)	무응답	1명(0.4%)
----	------------	----	-------------	-----	----------

3. 농활이나 빈활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마을청년들이 추근덕거리거나 직접적으로 연락처를 물어온다. 마을주민들과 술자리가 생기면 남자들 옆에 여학생을 앉혀 술을 따르게 한다.

있다	15명(6.5%)	없다	212명(91.8%)	무응답	4명(1.7%)
----	-----------	----	-------------	-----	----------

4. 교수가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한다.

있다	3명(1.3%)	없다	226명(97.8%)	무응답	2명(0.9%)
----	----------	----	-------------	-----	----------

5. 위와 같은 상황들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혹은 그런 경우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① 그냥 무시한다. 18명(7.8%)
- ② 몇번 화를 내보다가 포기한다. 9명(3.9%)

- ③ 주위의 학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1명(13.4%)
  - ④ 상대방이 폭력행사를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105명(45.5%)
  - ⑤ 공론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21명(9.1%)
  - ⑥ 기타 8명(3.5%)
- 무응답 39명(16.8%)

㉠ **상황 5 (메이트 강간)**

1. 1년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있다	13명(5.6%)	없다	211명(91.3%)	무응답	7명(3.1%)
----	-----------	----	-------------	-----	----------

2.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오던 사인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다.

있다	8명(3.5%)	없다	211명(91.3%)	무응답	12명(5.2%)
----	----------	----	-------------	-----	-----------

3. 위와 같은 경우들에 느낌이나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혹은 그런 경우가 없다면 어떤 느낌이나 상황으로 변할까요?)

- ① 아무 변화 없다. 5명(2.2%)
  - ②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16명(6.9%)
  - ③ 불쾌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16명(6.9%)
  - ④ 거절한 이후 어색해지거나 헤어졌다. 103명(44.6%)
  - ⑤ 기타 27명(11.7%)
- 무응답 64명(27.7%)

㉠ **상황 6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강간 미수)**

다음중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알고 지내던 선배가 모포지에서 다들 자는데 내 가슴을 만지고 몸을 더듬더니 강간하려고 해서 밀어냈다.

있다	5명(2.2%)	없다	222명(96.1%)	무응답	4명(1.7%)
----	----------	----	-------------	-----	----------

2. 모포지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갑자기 남학우가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며 에무를 했다.

있다	8명(3.5%)	없다	219명(94.8%)	무응답	4명(1.7%)
----	----------	----	-------------	-----	----------

3. 자취방에서 다들 술을 마시고 풀아 떨어져 있는데 알고 지내던 남학우가 강제적으로

강간했다.

있다	0명(0%)	없다	227명(98.3%)	무응답	4명(1.7%)
----	--------	----	-------------	-----	----------

4. 위와 같은 상황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혹은 그런 경우가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① 피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다. 25명(10.8%)
- ② 여학생회에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 20명(8.8%)
- ③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상담한다. 71명(30.7%)
- ④ 법적으로 해결한다. 24명(10.4%)
- ⑤ 여성단체와 상담한다. 28명(12.1%)
- ⑥ 기타 13명(5.6%)
- 무응답 50명(21.6%)

◎ 상황 7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나 타인에 의한 강간, 강간 미수)

다음중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작년 연대항쟁에서 전경이 온갖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가슴을 만지고 성폭력을 행사하였다.

있다	3명(1.3%)	없다	224명(97%)	무응답	4명(1.7%)
----	----------	----	-----------	-----	----------

2. 동아리방에서 혼자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강간했다.

있다	0명(0%)	없다	227명(98.3%)	무응답	4명(1.7%)
----	--------	----	-------------	-----	----------

3. 학교 근처 술집 화장실이나 으스스한 골목, 학교안 화장실 등 으스스한 곳에서 어떤 남자가 접근해서 강간을 하려다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있다	3명(1.3%)	없다	224명(97%)	무응답	4명(1.7%)
----	----------	----	-----------	-----	----------

4. 위와 같은 상황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혹은 그런 경우가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① 피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다. 14명(6.1%)
- ② 여학생회에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 24명(10.4%)
- ③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상담한다. 55명(23.8%)
- ④ 경찰서에 고소하고 법적으로 해결한다. 45명(19.4%)
- ⑤ 여성단체에 상담한다. 34명(14.7%)
- ⑥ 기타 7명(3.1%)
- 무응답 52명(22.5%)

◎ 상황 8 (96년 12월 국민대 교수에 의한 여대생 강간사건을 실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교수와 한방을 쓰면서 교수의 일을 돕는 여학생이 있다. 어느 날 교수는 여학생과 논문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고는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선 시외로 나가 여관앞에 차를 세웠다. 교수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주장하면서 여학생을 강제로 여관으로 끌고 가서는 강간하고 대학원 합격과 원만한 생활을 빌미로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1. 위와 같은 상황이 우리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식의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① 그런 일에는 관심없다. 0명(0%)

② 학교의 명예가 걸렸으므로 개인적으로 돌이 해결해야 한다. 0명(0%)

③ 권력관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론화시키고 교수에게 처벌을 가해야 한다. 216명(93.5%)

④ 학교내에서만 조용히 해결한다. 4명(1.7%)

⑤ 기타 4명(1.7%)

무응답 7명(3.1%)

2.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위 상황들 중 학교와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해결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대책이나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어서 무마되어 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은 해결책이거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폭력에 대한 학칙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 220명(95.2%)

필요하지 않다 3명(1.3%)

무응답 8명(3.5%)

3. 지금 복현골의 성문화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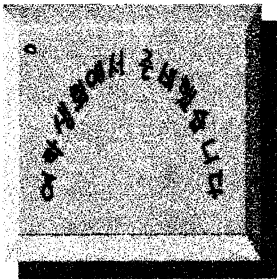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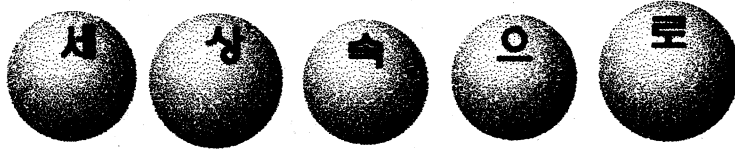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25명(10.8%)

모르겠다 63명(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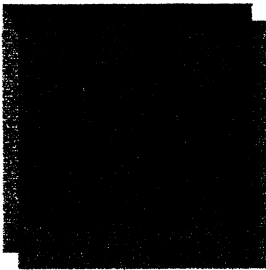
고쳐야 할 점이 많다 34명(14.7%)

심각하다 93명(40.3%)

기타 16명(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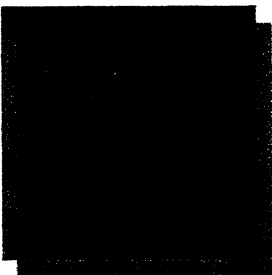


**여학생회와 나?  
학생회와 나?**



**여성정리해고 0순위  
우리의 일자리가 흔들린다**

**내몸의 주인은 바로나  
올바른 성적 자기정체성 가지기**



**기네스북에 오르는 수요시위  
정신대 문제 알아보기  
양공주가 아니에요  
기지촌 여성들의 삶 알아보기**

**예비노동자, 예비부모로서의  
탁아문제 바로보기**



## 여학생회 거리

### 여학생회와 나? 학생회와 나?

이 땅에서, 복현골에서 여성으로서 여대생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자이기에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경험들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 고민으로 그쳐버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어 소외받고 주변화 되어온 그런 고민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여성으로써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이번 '대등학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마음껏 이야기하고 느끼며 자신과 일상에서부터 억압의 틀을 깨고 진정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1대 사회대 여학생회장 심리 96 심대리

봄햇살의 따사로움과 설렘으로 복현골에 찾아온 새내기, 재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등학교...

뭘까? 뭘까? 고민하며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탐색한 새내기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3일동안 진행되는 강연, 토론, 실천활동..대동놀이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왕성한 호기심을 맘껏 채우셨으면 합니다.

3일이 결코 짧지만은 않다는 것 아시죠?

복현골 곳곳을 누비면서 많이 알고, 실천하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남다른 사랑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대등학교 졸업장을 받아 안는 날까지 열심히, 3일 이후 대학생활을 하는데 디딤돌로, 좀 더 알찬 대학생활 할 수 있었음 합니다.

일세번째 농대 여학생회장 김현정

## ❶ 학생회와 나

대학생활을 1-2년 했으면서도 여학생회가 뭐지? 라는 질문을 들으면 "응? 그게?" 하면서 달문이 막히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여학생회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집부, 탁아활동이나 여성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우들이 말입니다. 특히나 참신한 98학번이 이제 학원에 바글바글거리며 선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올 이때, 우리들의 어버버 거리는 모습은 참 슬프겠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지요!!

우선, 여학생회가 뭔가를 생각해보기 이전에, 여학생회의 주인인 여대생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첫째로, 여대생은 근로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성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대다수 여대생들에게 '결혼제일주의'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IMF경제위기에 정리해고 1순위가 바로 여성이라는 요즘, 이러한 모습은 심화되고 있다 할 수 있죠.

둘째로, 여대생은 교육을 통해 왜곡된 의식을 주입 받고, 소극성·수동성·의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 학문활동, 자치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원내의 남성위주의 문화풍토, 공간 등에 의해 부채질되기도 합니다. 공공연하게 남학우들의 입에서 여학생은 과에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사고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함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셋째로, 여대생은 취업여성이 당하는 경제적 박탈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진출에서부터 여성을 좌절시킵니다. 대학을 상품화하려는(우리 인문대의 학부제또한 그러하죠) 논리와 고학력 실업의 문제가 여성을 고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려는 성차별의 문제, 여성 노동의 착취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여대생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어휴~ 돌아보니 마음이 답답하죠. 좀더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학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여학우임에도 불구하고 과, 혹은 동아리, 복현골에서 자신의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모습, 그리고 남학우 중심의 분위기·문화에 주눅드는 모습, 암암리에 자행되는 학내 성폭력과 취업 채널의 장벽에 힘겨워하는 모습 등.

이 모든 문제는 여학우들이 학원 내에서 여학우이기 때문에 느끼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학우들이 대학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제 자리를 찾고 여학생회라는 하나된 힘으로 없애나가야 합니다. 즉 여학생회는 여학생이기에 부딪치는 어려움이나 겪게 되는 잘못된 일들을 전체 여학우들이 함께 힘을 뭉쳐 풀어나가는 곳입니다.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자주적 지향과 권리들을 획득해나가는 모습들이 있는 곳, 바로 여학생회입니다.

## 여성문제 연구부거리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여성정리해고 0순위  
내용의 주인은 바로 나 .올바른 성적 자기정체성 가지기

아~앗! 벌써 1년이 지나고 어느새 8번째 대동학교가 개최되는군요. 대동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학에 갓 입학하여 모든 것이 새롭고 어느 면에선 어리둥절하실 텐데요. 이번 대동학교가 우리의 여성사회의 현실에 대해 한번쯤 고찰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또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빌게요. 새내기 여러분, 활기찬 대학 생활 만들어 가세요~!

사회대 여연 <나는 나> 학회장 97 심지수

반갑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이렇게 새터에서 밝고 싱그러운 98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아직 모든게 어색하고 궁금한게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궁금증속에 저희 '여연'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끼고 살았던 교과서 속에서 여성문제, 남녀차별을 느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주변의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이 왜 당연한지, 진실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들인지 생각해보아야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온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여연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출발점입니다.

새내기 여러분!! 세상의 절반은 여자이고, 또다른 절반은 남자입니다.여성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절반'만이 참여한다면 여성문제는 절반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여연에서는 여성문제에 관심있고 흥미가 생기는 모든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특히, 여연이 없는 과의 새내기 여러분들을 '세포기'라는 이름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세포기'는"세상의 또다른 반쪽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재미있는 영화도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의모습은 어떠한지 얘기해보는 시간도 있고, 정신대 할머니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할 방향도 잡아볼 수 있겠죠?

저희 '세포기'에서는 새내기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여성문제를 바라보고 남학우,여학우가 같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세포기'를 찾아주세요!!!

인문대 여학생회 여성문제 연구부장 김수련

## ●성정리해고 0순위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꿈이라면 ...악몽이라도 좋으니 제발 꿈이었으면 ....

손꼽히는 재벌의 계열사에서 '커리우먼'을 향해 달려온 박아무개 (29.여)대리 .그의 바람은 이제 산산이 부서졌다."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안타깝다."는 이사의 말 한마디에 .

크리스마스의 '달콤함'이 채 가지지 않은 지난해 12월 26일. 출근하자마자 박씨는 이사의 호출을 받았다. 혹시 내가? 사실이였다. 회사를 온통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드디어 박씨의 가슴을 할퀴는 순간이였다.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했다. "고통분담 차원이라면 정리해고를 당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온 터였다. 해고 사실을 통보하는 이사의 일그러진 얼굴이 오히려 안쓰러웠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는 데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자신이 속한 마케팅국 정리해고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년차 이상 여직원은 사실상 다 걸린 셈이였다.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광고해오던 회사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회장님도 교육때마다 여성의 구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돌이켜보면 우연도 짓궂은 우연이였다. 해고 통보를 받던 날, 신문에는 자신의 회사가 '여성우대기업'으로 선정 돼 상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며칠 뒤, '해고 동료'들과 함께 이사를 면담했다. "우리가 여자라서 자른 것이냐." 이사의 답변은 적어도 단호했다. "그렇다, 해고되더라도 경제적 타격이 적은 사람을 골랐다. 다음 '인사조치' 때도 기준은 같다."

사실 박씨는 이제껏 자신이 받아 온 성차별에 대해 스스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지난 95년 2월 '바늘구멍 풀기'라는 회사에 공채로 당당히 입사한 그였다.

입사 뒤 첫 부서배치를 받으면서 "여자는 안된다."는 이유로 지원 부서를 놓쳤지만, 박씨는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래, 그 일을 처음부터 꿈꿔왔던 건 아니었으니까."

'해외석사'라서 남자동기보다 직급이 높으면서도 편지 가져오기 같은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신입사원이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나이도 두 살이나 어리지 않은가." '해외석사'라는 간판이 한국 여성에게는 오히려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박씨는 관대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남자 직원들이 "그래도 해외석사인데..."라고 비꼬더라도, "여자라서 속이 좁다"는 편견을 듣지 않으려면 꼭 참는 수밖에 없었다. 다 같은 대리를 부를 때 자기 이름 뒤에만 '대리'자를 붙이지 않았어도, 워본들에게 내색 한 번 하지 않은 것도 다 그 때문이였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관용과 인고의 시간'을 끝나게 했다. 대신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시간이 시작됐다. 무언가 속에서 불쑥불쑥 치받쳐 올라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고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일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지금 박씨는 취직자리를 찾고 있다. 며칠 새 달라졌을 리 없는 '남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일로 마케팅 전문가가 되려는 제 꿈을 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성차별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박씨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을 배양으로 밀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사소한 성차별이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의 귓가엔 함께 이사를 찾아갔던 선배의 절규가 여지껏 맴돈다. "나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나를 페미니스트가 되도록 한다."

## 왜 '여성먼저' 해고인가

국가로서는 불명예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가 두 달을 넘어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일자리를 갖고 한 가족이 수수하게 살아가기에 큰 걱정이 없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비참한 '풍속도'로 자리잡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예퇴직'이라는 그럴싸한 제도로 대접을 하면서 실질적 감원을 하는 일이 당사자들의 불만을 샀으나, 이제는 그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정도로 해고 바람이 매섭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 해고 위협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실직이라는 날벼락 앞에서 특히 불안을 느끼는 이들은 여성이다. 요즈음 구조조정이나 경비절약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들에서 자녀를 2명 넘게 둔 여성은 최우선 정리대상이라고 한다. 그 뒤를 자녀 한 명인 여성, 기혼여성, 장기근속여성, 남성이 잇고 있다. 미혼인 여직원들에게는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심리적 압력은 넣고, 임신한 여성에게는 '휴가를 가라'는 식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위로금이라도 타려면 사직서를 고분고분 내라'고 다그치는 경우도 잦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고용구조'가 여성들을 정리해고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이화여대 차은영 교수(경제학)는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곤 우리 나라 여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 가치가 낮은 단순 업무 분야에 몰려있다"며 "따라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보면, 남성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성 노동력이 일차적인 정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 1순위'인 계약직, 촉탁 사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의 여성고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감원'을 하더라도 최대의 피해자는 역시 여성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고용구조'가 여성들을 정리해고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이화여대 차은영 교수(경제학)는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곤 우리 나라 여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 가치가 낮은 단순 업무 분야에 몰려있다"며 "따라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보면, 남성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성 노동력이 일차적인 정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 1순위'인 계약직, 촉탁 사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의 여성고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감원'을 하더라도 최대의 피해자는 역시 여성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 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뒤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에게 심각한 생존권 위기가

다쳤다. 정부와 기업들이 '여성 먼저 해고'라는 잘못된 방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오랜 세월 남성이 독점해온 영역에 뛰어들어 외로이 일하는 여성은 남성 중심의 업무체계와 여성 차별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남성보다 뒤지는 체력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생리적 기능이 일으키는 노동 중단도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

여성의 이런 성적 특성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만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창의성이 뛰어나고 생산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이엠에프 위기가 온 국민을 짓누르고 있는데, 유독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 ●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올바른 성적 자기정체성 가지기

##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적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부부 강간, 강도 강간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 2. 성폭력의 실태

지난해 1만 2천여건 전년 대비 58%증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 전국 성폭력상담소 36곳의 97년 상담건수를 집계한 결과, 성폭력상담이 1만 2천540건으로 96년 7921건에 비해 5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920건을 기록한 95년에 비해 무려 4배나 급증한 수치다. 가해자가 상담을 한 사례도 182건에 달했다. 피해사례별로는 강간이 4649건으로 37.6%, 성추행이 4832건 39.1%, 성적희롱이 2877건 23%였다. 96년에 비해 강간은 28%, 성추행은 90%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성추행사례가 특히 많아진 것은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의식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피해자는 14~19세가 4462건(36%), 7~13세가 1211건(10%)으로 미성년자가 전체의 51%에 달했다. 이는 96년보다 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7세미만 유아피해자가 619건(5%)에 달했다. 가해자는 직장동료나 상사가 전체의 13%인 1658건 이웃이 1230건(10%), 근친이 966건(8%), 친인척이 774건(6%) 등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무려 48%에 이르러 성폭행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저질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년도	95		96		97	
		계(명/%)		계(명/%)		계(명/%)	
상담유형	강간	1305	45.0	3620	45.7	4649	37.6
	성추행	989	34.0	2539	32.1	4832	39.1
	기타	608	21.0	1762	22.2	2877	23.3
	가해자					182	
상담소수		11		24		36	

### 3. 성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문제들

- 1.심리적인 문제 : 손상된 신드롬, 죄의식, 공포, 두려움, 무력감, 우울증, 신뢰성 상실, 낮은 자아 의식과 미성숙한 사회성, 역할의 갈등과 혼란
- 2.육체적 문제 : 상해, 임신(강간 피해자의 12%), 성병(1.3%)
- 3.경제적 문제 : 금전 갈취, 수입상실, 치료비 ...
- 4.법적인 문제 : 경찰·재판부의 태도(성폭행을 재경험하는 듯한 느낌), 정조에 관한 죄(순결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이중의 고통), 친고죄(피해자가 신고를 꺼림), 성추행 간과

### 4. 성폭력 상담의 처리과정

#### 1.증거를 보존하자

- 1)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병원이나 경찰서로 간다.
- 2)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 3)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흥기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때는 종이 가방등을 사용한다.
- 4)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위한 술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

#### 2.병원에 가자

- 1)의상검진, 즉 신체적인 상해상태를 살펴본다.
- 2)질의 파열상태 검사, 즉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처녀막의 파열여부를 검사한다,
- 3)성병감염여부를 검사한다.(특히 ADIS) 이 경우 검사결과가 금방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 것도 있다.

### 5. 대안을 찾아서

- 1)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 2) 통제차원의 대책이 필요 --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3) 우리 사회의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 대상화하는 향락산업의 규제가 필요하다. 남녀가 평등한 성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 4)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성의 사회화도 양성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올바른 성인식 및 성행동을 돕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이 절실히 필요하다.(전문상담기관, 종합위기센터 등)



## 연대사업부거리

### 기지촌 여성들의 삶 알아보기

### 300차 수요시위를 기점으로 다시바라보는 정신대 예비노동자,예비부모로서의 탁아문제 바로보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곳곳히 피어나는 새내기들을 보니 복현골도 또다시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활이지만 이제 성인으로 때문지 않은 시선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실 새내기들을 보니 저도 새내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한 여러분들 앞에 대동학교라는 새로운 경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단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이후 대학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대동학교는 새내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새내기, 재학생 모두가 크게 어우러 질 수 있는 한마당! 대동학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여학생회 연사부장 정선희

초기 문화 인류학자의 연구결과가 입증하듯이 남성과 여성은 사회문화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이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길들여짐 속에서 우리들은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껍질을 깨고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고자 대동학교로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힘찬 발걸음을 시작으로 우리함께 희망찬 평등새날을 열어젖힐시다. 가슴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대 연사부장 노어노문 97 최미애

전 농대에서 연대사업을 맡고 있는 97학번 정현주입니다. 요며칠 들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이번 8기 대동학교를 통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학생회라는 곳을 두려워 말고 찾아오시면 언제나 반겨드립니다. 놀러 많이 오세요.

농대 연사부장 농생물 97 정현주

## 기지촌 여성들의 삶 알아보기

1998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1월 16일, 새벽 의정부에서 허주연씨가 미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또한 미군은 허주연씨를 살해한 것 뿐만 아니라 주검을 불태워 허주연씨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범행동기는 어이없게도 숨진 허씨가 담배를 많이 피우고 부엌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끔찍하게 죽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땅의 딸로 태어나 이 나라의 국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스물 두 살 꽃다운 나이에 처참하게 죽어간 허주연씨. 그녀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혼란한 마음에 중학교 때부터 몇번의 가출을 했고, 고등학교때 집을 나와 여러곳을 전전하다가 2년전 의정부 JS클럽에 정착을 했다.

170센티가 훨씬 넘는 키에 수수하게 생긴 그녀는 착하고 서글서글한 성품을 지녔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한다.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아주머니는 "이런일 하는 아이답지 않게 때가 묻지 않고 순수했다." 하고 회상한다.

이러한 그녀의 성품과는 달리 의정부에서 그녀의 생활은 너무나 어려웠다. 그녀의 방은 그녀가 생활하는 방이기도 하지만 영업을 하는 방이므로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야 하고 그러려면 기본적인 가재도구 뿐만 아니라 침대 등 가구와 가전제품들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꾸미기 위해 외상으로 구입한 빗이 많았고, 천원으로 밥을 사먹으면서 4명이 먹을거라며 밥을 더 많이 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불에 탄 그녀의 방은 그녀가 다니던 JS클럽에서 150m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허주연씨의 집은 스탠리 부대 앞의 고산동 길가에 위치해 있는 집으로 길가쪽으로는 식당이고 골목으로 들어가 집 옆에 붙어있는 대문을 열면 숨진 허씨의 방이 나온다. 허씨의 방 밑에는 두 개의 방이 연결돼 있다. 불에 탄 허주연씨의 방은 삭막하고 스산한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준다. 허주연씨를 살해한 범인이 허주연씨를 살해하고 침대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침대는 완전히 타서 내려앉아 시커멓게 그을린 스프링만 남아 있었고, 텔레비전이 타서 찌그러진 것 말고 그녀가 사용하던 다른 가재도구들은 그을리기만 한 채 그대로 있다. 간소한 옷장과 그녀가 입었을 많은 옷들, 화장대, 세탁기, 싱크대,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과 묘한 기분을 갖게하는 영어사전과 성에 관한 책, 미제 알약들과 피임 도구들, 1센트 짜리 동전과 10원짜리 동전들, 수십가지 색깔의 화장품. 이것이 이승

에 살다간 허주연씨의 삶의 흔적 전부이다.

그녀의 삶의 흔적들을 만져보며 드는 낯선 느낌 한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스물두살 짜리 처자들처럼 어떤 희망과 착하고 소박한 마음, 풍부한 감수성을 가진 따뜻한 마음의 처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받은 카드와 써놓고 못보낸 예쁜 카드들, 옅은 하늘색의 편지지, 그전 옛말에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고 했던가?

처참하게 살해된 허주연씨도 어쩌면 그러한 때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1년 반쯤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던 허주연씨는 살해되기 얼마전에 그녀의 어머니님 생신을 맞아 어머니와 세명의 언니들과 함께 6박 7일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리고 살해되기 이틀전에는 외할머니까지 모든 가족들을 다 만나보고 그날 저녁 "아빠는 댄 방에서 주무세요. 난 오늘 엄마랑 댄 들어만 자고 싶으니까"라며 어머니와 댄들이 잠을 잤다고 한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허주연씨의 어머니는 그나마 딸자식과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함께 잔 것으로 위안 삼으며 한을 쏟어 안는다. 현재 허주연씨는 부검을 실시한 다음날인 1월 22일에 화장하여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허주연씨가 한많은 이 세상을 정리하고 혼이라도 좋은데 가라고 49제까지 절에 모시고 일주일에 한번씩 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억울한 허주연씨의 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 비노동자, 예비부모로서의 탁아문제 바로보기

## 1. '빈민탁아'에서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까지 10년

정태춘씨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랫말처럼 80년대 달동네, 철거지역 도시빈민의 소외된 삶속에서 '빈민탁아'의 이름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탁아운동은 10년의 역사속에서 90년대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으로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나가고 있다.

80년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최고의 목표 아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거대한 도시빈민의 형성과 정부, 기업의 방관 속에서 공단, 철거지역을 중심으로 탁아에 대한 요구들이 자생적으로 모아졌으며, 일나간 엄마를 대신하여 그 지역 아이들을 돌봐주는 형태로 '빈민탁아'는 출발하였다.

이후 방치된 아이들의 지속적인 사고, 죽음을 계기로 이전까지는 한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맞벌이 가정의 탁아문제가 국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탁아운동의 양적, 질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된다. 92년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에서 이후 보육정책의 끊임없는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빈민탁아'가 시대와 보육정세, 의식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활동 전망의 모색 속에서 지금의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도시 환경 미화사업과 재개발을 위한 강제철거로 인해 활동 근거지의 해제, 도시 빈민층의 광범위한 저소득층으로서의 확대와 변화, 정부의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보육정책과 이로 인한 영리 사업으로 치닫는 지금의 보육현실,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필요하던 요구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교육까지 점차 다양해진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요구들의 주체적인 변화 속에서, 원칙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이 속에서, 광범위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한 그리고 건강함과 올바른 아동 보육 실현을 위한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이 만들어 진 것이다.

## 2. 정부의 보육정책 10년

10년의 활동과 노력, 국민적 요구,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육정책은 자녀 양육의 문제와 책임을 전적으로 각 가정의 문제로 축소시키면서 그 책임을 철저히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탁연의 활동과 엄마, 아빠가 일나간 사이 문이 잠겨진 방 안에서 불에 타 죽은 혜영, 용철 남매사건을 계기로 탁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뒤늦게 영유아보육법과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성의 인권, 여성의 노동가치, 사회적 재 생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자녀양육의 매 권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인식의 부재속에서 정부는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보육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육정책의 핵심은 여성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의 개별화에서 출발한다. 즉, 여성의 노동, 사회참여 활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문제(자녀양육, 가사노동, 노인문제 등) 그리고 여성이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와의 완전한 차별화 속에서 자녀양육의 전적인 부담과 책임을 여성 개인과 가정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원칙속에서 정부는, 가정의 급증하는 보육요구에는 보육사업의 영리화, 민간보육시장의 개방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인 확대만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민간보육시설의 난립속에 운영과 보육질의 저하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육사업의 일주체인 민간 보육시설의 정부지원 및 정책선의 요구에는 보육료의 자율화와 보육시설간의 경쟁, 강력한 규제 등으로 더욱 영리성으로 치닫게 내몰고 있다. 결국 지금의 정부정책 속에서 여성은 자녀양육의 전적인 부담을, 가정은 높은 보육료의 부담을, 아이들은 질 낮은 보육을, 민간보육시설은 영리성의 강화를 각각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 3. 탁아와 함께한 복현골의 10년

90년 방치된 아이들의 죽음이 복현골에도 알려지면서 총여학생회에서 시작한 탁아사업이 이제 10년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이라는 이름하에 2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탁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던 활동들이 92년부터 각 단대 소모임, 특히 인문대는 과 소모임으로 만들어지면서 나름의 활동들을(현장보조, 후원사업)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2-3년간의 활동들을 평가, 반성하면서 좀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디딤 어린이집’으로 활동을 집중, 정리해 내면서 디딤의 탁아활동과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복현의 탁아활동을 준비에서 총화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교육에서 행사사업까지 구체적으로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원활동가와 소모이들, 재정후원까지 함께 책임지고자 노력하는 복현의 학우들이 복현의 탁아10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 ‘디딤’은 92년부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비산동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94년 재정과 내용에 대한 준비를 통해 95년 3월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 디딤은 ①다른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의 반액수준의 저렴한 보육료를 통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분담 ②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의 인성, 사회성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권리실현 ③24시간, 야간, 휴일, 영아보육 등의 운영을 통한 각 가정의 다양한 보육요구의 실현이라는 목표속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목표 속에서 결손가정에서 맞벌이 서민가정까지 10개월 영아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까지, 24시간보육에서 밤 11시에 집에 가는 야간 보육까지, 다양한 처지와 조건 속에서 디딤을 이용한 가정, 정기적 재정후원을 하는 학생, 전세금의 절반을 기꺼이 후원하시는 한의사 선생님, 아이들 비상약품을 후원하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 현장에서 교사들을 보조하며 기저귀가는 일에서 청소, 교육활동까지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 이들과 함께 디딤 현장을 24시간 지켜나가는 교사들!

나보다는 우리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엄마에게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 보호, 교육받을 권리를!

노동자에게 생존권 향상을!

이라는 목표실현 위해 디딤 공동체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인부문제 알기

### ●인간위탁금이 뭐냐? (정대협에서 한겨레 신문에 실은 광고내용)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은 일본 정부의 배상이 아닙니다.

‘국민기금’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는 속임수입니다.

피해자 당사국인 한국, 필리핀, 대만의 ‘국민기금’ 지급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연초 1월 6일 국내의 3개 일간지에 ‘국민기금’ 전면광고를 실었습니다. 한국이 IMF한파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영한 기습적인 전면광고는 피해자 당사국과 피해자, 시민단체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면광고에서 ‘국민기금’은 일본정부가 배상하는 것같은 문구를 실고 있지만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배상하는 것같은 문구를 실고 있지만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배상한다는 말을 한 것이 없습니다. 또 ‘국민기금’ 광고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이미 전후배상문제는 끝났다”고 전제하여 더 이상 일본이 배상하지 않을 것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국민기금’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는 속임수입니다. 일본정부가 배상하지 않고, 단지 민작차우너의 사과금으로 이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셈을 보여줍니다.

### 총리의 서한

이번에 정부와 국민이 다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통해 종군위안부로서 희생되신 분들께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사과를 표하는 사업이 행해짐에 즈음하여 저의 심정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구일본군의 관여하에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양면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거움으로부터도 미래를 향한 책임으로부터도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와 반성의 뜻에 입각하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며 이것을 후세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부조리한 폭력등 여성의 명예화 존엄서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평온하시기를 충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1997년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하시모조 류타로우

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 정신대 할머니 김운심 이라고 합니다. 저이들은 지금 199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사죄 배상하고 국민기금철회라는 데모를 수요일마다 296차에 걸쳐 눈이오나 비가 오나 꾸부러진 허리를 펴며 국민기금반대 한다고 목이 터져라 하고 위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우리 한국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이 중으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한국정신대 할머니들은 절대로 일본에서 준다는

국민기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준다는 국민기금은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모욕을 이중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은 몸이 다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일본에서 준다는 국민기금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일본정부는 우리에게 사죄하고 정부에서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할머니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운심

### **'일본 국민기금' 위안부해결 회피용**

최근 국내 몇몇 중앙일간지에 일본의 이른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의 광고가 게재됐다. 경제난국에 처한 한국인을 비웃는 듯한 국민기금쪽의 자기과시는 일제의 고강도 전술을 떠올리게 한다.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없이 이 광고만 읽은 사람들은 마치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이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불하려 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타계한 김학순 할머니의 국민기금 반대 유언과 지난 8년간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의 투쟁과정을 아는 이라면 이 광고의 속임수를 쉽게 알아차렸을 것이다.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이 협력하여 만들었다는 이 기금은 "95년 한일조약에세 식민지 청산과 전쟁책임의 배상 문제는 끝난 것으로 전제하며 국민적인 보상의 마음을 표하는 취지에서 돈을 지불하는데 이 돈은 그러므로 '사과금'의 성격으로 전달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 말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금 지불에 대해 국민기금으로 대처하려는 저의를 표명한 것이고, 그러므로 앞으로 공적 사죄나 배상은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은 다음 여섯가지 항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 배상, 공식적 사죄,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 건립, 역사교과서 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 국제변호사협회 등 국제단체들도 동의하여 일본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속에서 배상요구를 회피하려고 일본정부가 묘안을 짜낸 것이 국민기금이다. 할머니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이용하여 약삭빠르게 대대적인 광고 공세에 나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돈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청산은 회피하면서 가난한 희생자들을 돈으로 유혹하는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유감스럽게도 소극적이었다.

앞으로 새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한일간의 과거청산에 임하여 위안부 문제를 책임있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 노래 를 배 워 보 요 ♪♪

### 처음처럼

한판 싸움이 다가올수록  
우리가슴은 처음처럼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처음처럼 그렇게  
두근거리던 처음의 마음  
우리 투쟁으로 희망이 되고  
지금도 처음이라고 아아아 여긴다면은  
날마다 희망이러오  
저들에게 진실을 알게하리라  
우리가 지켰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룻밤의 꿈이라는 걸  
동지들이 몰아쳐가자  
끝이 올수록 처음처럼

### 바위처럼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배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얇은 갈대 일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구나

### 희망을 사가세요

희망을 사가세요 모두 필요한 만큼 사가세요  
희망도 파냐구요  
물론 거짓말이죠. 살 수 없는 거죠  
살다보면 수도 없이 부딪히는 절망의 벽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벽 절망  
희망을 가져가요  
나와 함께 할 사람 모두 희망이죠

### 가장 낮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반백년 분단의 세월 제아무리 길다하여도  
반만년 이어온 핏줄 끊을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적대하며 증오했던 날들을  
만남과 화해속에 모두 날려 버리고  
한민족의 힘과 지혜 남과 북이 하나로 모아  
가장 낮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독약은 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인 것처럼  
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입니다  
제민족 제형제를 적이라 강요하며  
통일의 길 막아나서는 보안법 물리치고  
한민족의 힘과 지혜 남과 북이 하나로 모아  
가장 낮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그 어떤 사상 제도가 제아무리 좋다하여도  
민족의 이익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가정이라도  
갈라져 싸운다면 모두 망할 뿐이라  
한민족의 힘과 지혜 남과 북이 하나로 모아  
가장 낮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 ● ● 대동학교 일지 ● ● ●

● ● ● 인 인

오늘은  
유미선

강연내용은  
어렸어요

어린 고면이  
돌았어요

우리 조  
토론은

대동학교에서  
배운 점

나는 앞으로  
어떻게

●●● 대동학교 일지 ●●●

●● 일 ●● 일

오늘들은  
강연제목

강연내용은  
어렸어요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 조  
토론은요

대동학교에서  
배운 점

나는 앞으로  
어떻게

● ● 대동학교 일지 ● ●

● 일 ● 일

오늘들은  
강연제목

강연내용은  
어랬어요

어런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 조  
토론은요

대동학교에서  
배운 점

나는 앞으로  
어떻게



# 사랑과 평등의 용달생



**메모하세요**

궁금한 점. 느낀 점. 선배에게 꼭 물어보아야지...

FROM:

# 여성문제와 나

강사 : 이 호 숙 ( 여성과 현실연구회 )

## I. 여성문제에 대한 기초적 인식

### 1. 여성문제란 무엇인가?

- 성차별 : 여성이 남성과 다른 '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시, 억압적 대우를 받는 것, 많은 경우 여성은 본인이 지닌 능력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할이 상당부분 결정되어 왔다.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자주 취한다. 또한, 남성이나 여성이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런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는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만,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
  - ▶ 사회·경제적 차별 : 채용이나 승진 및 임금에서의 차별, 성별 노동분업, 여성적 역할 기대
  - ▶ 법적·정치적 문제 : 호주제도, 법조계, 정치계의 여성 진출 저조
  - ▶ 문화적 차별 : 출생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 낙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고정관념에 의해 구속되는 개인의 삶

### 2. 여성문제와 나

-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 개인적 차원에서 넘겨 버리는 많은 고충들이 사실은 그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공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즉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던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인 바탕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 예) 아내구타, 성폭력
    - 여성의 경험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 3. 여성문제의 해결은 여성의 인간화를 지향하고 남성의 인간화도 포괄하는 것이다.

- 여성운동은 첫째, 여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원인을 밝히고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 둘째, 남녀 모두가 성별에 따른 구속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여성운동은 인간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남성에 대해 갖는 문화적 편견과 구속도 동시에 줄여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므로 남성해방운동과도 연결이 된다. 남성과 여성이 공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굴레를 벗어 던지고 보다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 II. 대학에서 여학생의 위치

### 1. 남성중심적 대학에서의 여성

-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은 합리와 이성의 상징으로서 불합리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여학생들조차 자신들이 느끼는 부당함이나 불편함의 정체가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그런 것처럼 대학에서 받는 교육과 환경도 남성위주이다.
  - 예) 학과 대표, 학생회장은 대부분 남자, 여학생의 수에 비해 여자교수의 수가 지나치게 적음, 화장실, 자판기 등 편의시설의 부족, 체육대회 때 종목도 남학생 위주의 것들이 대부분
- 여학생은 남학생들에 비해 부차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남학생의 뒷선으로 밀려나고, 취직을 하거나 학계에 남아 교수가 되고 싶어도 끌어 주는 사람이 없다. 똑같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은 이후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질들을 습득하게 되는 반면 여자들은 풀이 죽고 자신감이 사라져서 졸업을 하게 된다.

## 2. 대학에서의 대표적인 차별

### 1) 진로 결정

#### ▶ 대학원 진학

여학생은 대학원에 들어갈 때부터 기대를 받지 못한다.

대학원 진학은 성적으로 합격, 불합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같은 학과라도 전공분야나 교수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달라지는데 여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어렵다.

#### ▶ 취업

여학생의 거의 다(97%)가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전문적 여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미래를 꿈꾼다.

학교에서의 여학생 취업에 대한 입장 - "재주껏 각자 해결하라." 여학생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해 소극적, 여성의 취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공학에서의 여학생에 비해 여대의 여학생이 더 취업률이 높은 것은 여학생에 대한 학교 당국의 관심이나 태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직장을 갖겠다는 목적은 같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고, 대학에서 배운 학문과 기능을 직장을 통해 실현하고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해서다. 취업에서의 문제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달 절실하다. (여학생에게 덜 절실하다면 취업 때문에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건 어떻게 해석하나?)

### 2) 교수, 동료의 편견

- 여학생이 뭐하러 공부 열심히 해?
- 사적, 공적인 연결망 부족
- 역할 모델의 부족
- 문화적 차별 : 남학생을 평가할 때는 똑똑하다, 의리있다, 쫄쫄하다 등 능력, 성격, 행동에 대해 평가, 그러나 여학생을 평가할 때는 못 생겼다, 예쁘다, 여자답지 않다 등 외모나 실체를 평가

### 3) 성문화

대학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성문제가 묵인되고 있다. 또한 처벌의 규정도 애매할 뿐 아니라 가해자가 과, 동아리 선후배, 동기, 교수라는 이유로 덮여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학내에서 성폭력에 관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 신고·상담기관, 처벌규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 3. 여학생회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여학생회는 여성들과의 연대를 위한 여학생들의 조직으로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의 실현을 위해 여러 활동 속에서 여학생들을 주체적인 여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 - 생각해 볼거리 -

- 1)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가? 있다면 이유는?
- 2) 나는 어떤 성고정관념을 혹은 가지고 있는가? 성고정관념으로 인해 어떤 이익과 손해를 보았는가?
- 3) 내가 여성답게 혹은 남성답게 자라 온 과정, 그 과정에서 가족과 학교의 영향
- 4) 대학에서의 성문화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예기해 보고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지, 그런 바람직한 성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보자.
- 6) 10년 후의 내 모습